

제55회 행정고시 제2차시험을 마치고...

제55회 행시(재경직렬) 2차 수험생

김○○

I. 시험을 준비하며

저는 올해 2차 시험을 세 번째 치르는 재경직 수험생입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1차 시험이 3주 정도 늦게 치러졌고, 3순환이 끝난 후 마무리 공부를 하는 기간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때까지 커트라인을 종잡기 어려웠고, 점수 자체도 생각보다 높지 않았던 관계로 불안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시험은 작년과 같이 고려대에서 치러졌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깝다는 점이 좋았고 시험을 치르는 강의실도 작년에는 대규모 강의실에서 치렀는데 올해는 적절한 규모의 강의실에서 너무 춥지 않은 온도에서 치르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저희 강의실에서는 결시생이 별로 나오지 않았고, 재경직 전반적으로 결시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 시험 끝나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한 것 같습니다. 또한 답안지를 거두어 가는 데에 있어서도 초안지와 답안지 부수가 안맞은 적이 한 번 밖에 없어서 신속하게 시험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II. 각 과목 관련 후기

1. 행정법

시험 시작하는 날이라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1문은 행정계획과 관련해서 대상적격, 원고적격, 절차상 하자, 공물의 사용 권리와 공공시설이용권이 출제되었고, 2문은 수리거부의 처분성 및 집행정지, 3문은 국가배상과 관련하여 출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출제가 예상되었던 파트에서 나와서 크게 무리가 없이 서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큰 문제로 통목차 문제가 출제되어 쟁점을 도출하는 것부터가 문제였지만, 올

해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너무 긴장을 한 상태여서인지 1문의 (1)문에서 분량 조절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이 아쉬웠고, 3문의 (2)문을 온전히 서술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행정법의 경우 최근 판례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첫 날 시험을 꼭 잘 봐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경제학

3문제가 출제되었고, 미시경제학 파트가 45점, 거시경제학 파트가 55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1문의 경우, 계산 문제가 아닌 서술형에 가까운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시장의 기능과 시장실패,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과 정부실패에 대해 물어봄으로써 미시경제학의 큰 틀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문제 자체는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수식이나 그래프 등을 사용하기가 애매하고 일반적으로 풀어보는 경제학 문제가 아니어서 답안을 작성하는 데에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1문은 그래프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전반적인 흐름을 서술하는데 치중하였습니다. 2문과 3문은 거시경제학 파트로서 개방경제와 총수요-총공급, 정책 방안과 경제 성장론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론은 올해 입법고시에서 출제되긴 했지만 행정고시에서는 한동안 출제가 안되었기에 나올만한 부분이었고, 문제의 수준도 그리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2문의 경우 (1)문에서 (3)문까지 유기적으로 서술하면서 현실 경제적 상황을 함께 쓰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일반 행정에 비해 재경직 경제학은 문제 자체의 답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좀 더 깊이 있고 논리적인 서술을 요구하는 문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3. 국제경제학

국제경제학에 출제된 문제들은 수험생들이 자칫 소홀히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만 골라서 낸 것이 아닐까 싶은 문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 자체가 어려운 편은 아니었지만, 작년에 출제되었던 Krugman의 독점적 경쟁모형이 다시 출제된 것이라던가, DD-AA모형을 사용한 것 및 전략적 무역정책 파트가 출제된 것 등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Krugman이 노벨상을 타서인지 Krugman 관련 문제가 2문제나 나왔네요. 1문의 (3)문에서 DD-AA모형을 사용해서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를 비교한 것은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변동환율제도의 경우 AA곡선을 이동시켰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시험 끝나고 들어서 아쉬웠습니다. 또한 3문의 (3), (4)문에서 수식을 통해 보조금 지급의 타당성을

고려하는 문제 역시 새로웠습니다. 우선 절대 작년엔 나온 파트라고 해서 버려두고 공부하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고, 국제경제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수험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여야하고, 답안지에는 어떻게 표출하여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재정학

1문은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문제, 2문은 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3문은 소득세와 상품세의 비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문의 (3)문의 정책 대안을 서술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학문의 특성상, 정부의 정책적 함의를 최대한 적어내야지 하는 다짐을 하고 갔는데, 막상 1문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당황스럽더군요. 일반론적인 부분을 서술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워서 가장 마지막에 서술하였는데, 만족스럽지 못하게 답안을 작성한 것 같아 조금은 아쉽습니다. 2문과 3문의 경우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정책적 함의를 적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높은 한계세율이 노동공급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 차선의 이론 등을 적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3문의 경우 올해 경제학의 유일한 계산문제 였는데,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산을 틀리지 않을 것과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5. 행정학

행정학은 제가 가장 답을 쓰기에 어렵게 느끼는 과목이어서 시험 직전에 더욱 긴장을 했었습니다. 1문의 공공성 문제는 최근 중요시되는 문제여서 예측이 어려운 분야는 아니었지만, 2문의 BTO, BTL의 등장은 조금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공공서비스 주체의 다원화는 예상 가능한 주제이지만 BTO와 BTL은 소홀히 지나쳤던 부문이었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틀릴 수도 있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긴장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억을 더듬어서 최대한 맞길 바라면서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3문은 인사행정과 조직문화, 교육훈련제도의 연계를 묻는 질문으로 새롭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질문에서 물어보는 바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에 치중하였습니다.

III. 마치며

세 번째 보는 시험에서 시험 기간 동안 절대 밤새지 말아야지 했던 다짐을

끝내 지키지 못하고, 5일 동안 낮과 밤이 뒤죽박죽하며 벼락치기를 했네요. 그런데 역시 끝나고 나니 드는 생각은 벼락치기 한 것은 별로 의미가 없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하는 벼락치기가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밤을 새면서 보았던 내용 중에 시험에 나온 부분은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상 시험을 보면 작성하게 되는 내용은 기존에 3순환, 4순환 기간 동안 충실하게 공부해왔던 내용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문제 자체가 입법고시처럼 문제를 보자마자 어렵다고 느끼는 수준이라기보다는, 접근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들이었다는 것 같아서, 과연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기가 어렵네요. 완전히 만족스럽게 답안을 작성한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못 본 것 같지는 않은 기분이야 발표가 날 때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 시험을 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2차 끝나고 나서 직후인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5일간의 시험과 시험 직전 기간 동안의 압축적인 집중력과 체력을 써내고 나니, 아무래도 은둔하게 되고 몸을 움직이기 싫어지는지라... 게다가 시험 기간부터 계속 내리는 비는 더욱 나가기 싫게 하네요. 그래도 폭 쉬고 다시 운동도 하고 토익 공부도 하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도 하면서 바쁘게 살아야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렇게 글을 쓰게 된다면 꼭 합격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이 글을 읽는 수험생 여러분들과 3차 면접 시험장에서 만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